

염상섭의 상호소통관

박 남 훈*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가상독자-가치중립적 |
| II. 소설의 사회적 기능 | 이상독자 |
| III. 미적 효과와 윤리적 효과 | V. 결 론 |

I. 서 론

염상섭은 소설가로서의 측면 이외에도 비평가로서도 문학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는 작가이다. 사실 그는 소설의 창작보다는 비평활동을 통해 문단에 알려졌으며, 그의 비평활동은 그 중량에 있어서 초기 비평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되고 있다.¹⁾

지금까지 그의 비평세계는 주로 그가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사회주의문학과 민족주의문학 사이의 대립을 분석하고자 하는 절충적 입장에 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아왔다. 예를 들어 <프로문학과 민족문학의 타협, 모색을 발견하려 노력한>²⁾ <절충파>였다는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그의 비평에 대한 평가는 주로 당시 문단의 역학관계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 釜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講師

1) 김윤식, 근대한국문학연구(일지사, 1973), 77면.

김종균, 염상섭의 생애와 문학, 김열규·신동욱편, 염상섭연구(새문사, 1982), I - 12면.

2)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일지사, 1980), 115면.

왔다. 이러한 평가는 <비평은 보편화된 설득의 몸짓으로 환원된다. 다른 사람의 신념을 변화시키려는 한 집단의 시도가 비평활동의 전부다>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³⁾ 즉 염상섭의 비평활동은 당시 프로문학의 성립과 이에 대한 대타의식에서 비롯된 민족주의문학과 대립적 상황 속에서 그가 <절충파>로서의 비평적 설득을 펴면서 두 집단의 신념을 <절충파>의 논리속으로 수렴시키고자 한 시도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염상섭의 비평활동을 이렇게 <절충파>의 논리로만 파악할 경우 그의 비평들이 모두가 당시 평단의 역할관계의 논리로 환원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그의 비평들은 단순히 <절충파>의 논리로만 재단됨으로써 그의 비평가로서의 특성이나 개성이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염상섭의 비평들 모두가 사회주의 문학권이나 민족주의 문학권에 대한 <절충파>적인 설득의 의도나 주제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당시 문단의 역할관계 속에서 생산된 비평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글들에서 비평가로서의 염상섭의 개성과 특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요청될 수 있다. 특히 소설가로서 그가 비평담론을 통해 보여주는 소설장르와 관련된 그의 입장은 소설가의 소설론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중에서도 그의 소설론과 그의 소설세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그의 비평세계 뿐만 아니라 소설세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염상섭의 평론 「소설과 민중」 (<동아일보> 1928. 5. 28~6. 2.)은 지금까지 소위 <절충파>로 어정쩡하게 이해되어온 그의 비평적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건 그가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의 속론(續論)이라는 부제의 이 평론을 통해 첫째, 소설의 본질을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형상화의 방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둘째 소설의 의미를 작품과 독자라는 수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입장을 보여줌으로써⁴⁾ 그 자신의 소설관—특히 소설의 발생적 측면과 사회적 기능, 그리고 수용적 측면—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소설과 민중」을 주 텍스트로 하여 소설가로서의

3) William E. Ray, Jr., *Literary Meaning*(Basil Blackwell, 1984), 166면.

4)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연구*(민음사, 1988), 188-189면 참조.

그의 소설관을 특히 독자와의 수용관계를 중심으로 한 상호소통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소설과 민중」을 상호소통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단순히 염상섭의 비평의 특성만을 밝히는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평론은 당시의 카프계열의 비평가들의 대중화론과 대비될 때 그것의 당대적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27년에서 31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카프의 예술대중화론이 카프작가들의 작품들이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창작방법론의 모색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⁵⁾, 소설의 사회적 기능과 수용의 측면에 주목한 염상섭의 이 평론이 상호소통론적 관점에서 당시의 카프예술대중화론과 어떠한 변별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문제에 관심함으로써 본고는 그의 〈절충파〉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II. 소설의 사회적 기능

염상섭에게 있어서 소설이란 장르는 가장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가 소설에 〈현대〉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근거는 그의 시대가 〈민중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설과 민중」의 서두에서 그는 이러한 〈민중의 시대〉로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그 계몽상태나 시운(時運)으로나 재력으로나 미술·음악·연극의 시대가 아님은 새삼스러이 노노(嗚嗚)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신히 가질 수 있는 예술은 시와 소설에 그치고 말 것이나, 그러나 현대는 운문의 시대가 아니라 산문의 시대이다. 시상(詩想) 없이 문학이 성립될 수 없고 또 소설은 시의 산문화한 인생기록·인생비판이라 하겠거니와, 여하간 이 시대는 민중의 시대-데모크라시의 시대이니만큼 시보다는 소설의 시대이다. 시를 귀족적이라 하면 소설은 평민적-민중예로의 예술이다. 그리고 조선사람은 비명상적·비시적(非詩的)이니만큼 시보다 소설에서 문학의 기반을 세울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⁶⁾

그에게 시는 귀족의 장르로, 소설은 평민적인 장르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의

5) 참고, 카프예술대중화론의 상호소통론적 연구(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97-116면 참조요.

6) 염상섭, 소설과 민중, 동아일보, 1928. 5. 27-6. 2.

시대는 <민중의 시대>로서, 곧 소설의 시대라는 논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조선사람>의 기질로서 <비명상적·비시적>인 특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설의 잠재적 수용자로서의 당대인들의 기질을 이처럼 <비명상적·비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염상섭의 상호소통론적 시각이 수용자지향성에 입각해 있다는 한 반증이 될 수 있다.⁷⁾

한편 염상섭은 소설의 발생문제와 관련하여 시에서 소설로 중심장르가 옮겨진 문학의 전반적인 현상을 <문예의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정신의 소산>으로 파악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의 발생을 <서민계급의 세력이 바야흐로 대두하려는 시운(時運)의 추이>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춘향전이나 홍길동전 등의 소설의 출현-필자주) 서민의식이 특권 계급에 대하여 승리하였다거나 혹은 계급의식이나 인습도덕에 반항하고 인물본위와 도의관념으로 부등(不等) 사상을 고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홍길동전이 서열의 천시압박에 대한 반동사상을 표백하고 심청전이 미천한 소녀로도 덕행의 응보로써 능히 왕후의 존귀를 누릴 수 있음을 묘사한 것은 역시 데모크라시 정신의 일발로(一發露)요 서민을 위한 만장(萬仗)의 기염(氣焰)이라고 하는 것이다.⁸⁾

여기서 그는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의 발생이 봉건주의의 특권계급에 적대적인 서민계급의 성장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말하는 <데모크라시 정신>은 봉건주의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의미로 국한된다. 그의 의식의 지평 속에는 봉건주의에 반립하는 서민계급만이 존재할 뿐 서민계급에 반립하는 무산계급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이렇게 유산계급/무산계급의 변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의 입장은 다분히 의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이 글의 앞머리에서 그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7) 이러한 그의 수용자지향성에 대해서는 황국명, 비평과 형식의 사회학(지평, 1988), 229면 참조요.

8) 염상섭, 같은 글.

유산·무산의 차이는 현세적 영예와 감각적 질락을 탐구(貪求)하느냐-구복(口腹)을 위하여 전생애를 임금노예에 희생하느냐는 구별이 있을 따름이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물질적 동물적 생육(生慾)의 충족을 최고최후의 생활목표로 하고 따라서 배타적 자기본위의 생활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전(政戰)과 상략(商略)에 피로한 머리는 미주가효(美酒佳肴)와 성욕적 환락으로 마비된 영성(靈性)과 양심을 또다시 마비시킴으로써 인생을 도호(塗糊)하거나 혹은 일일(一日)의 고역에 00한 심신을 감수(甘睡)로써 위로를 얻는 것이 유산·무산의 차이일 따름이다.⁹⁾

염상섭은 이 인용 속에서 유산·무산계급의 변별을 의식적으로 부정한다.¹⁰⁾ 이 두 계급은 그 본질에 있어서 욕망의 충족을 삶의 근본 목적으로 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염상섭의 사회학적 사고에서는 유산/무산계급의식의 변별적 자질이 의식적으로 간과되거나 부정되어버린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염상섭을 지배했던 의식이 <근대적인 것, 근대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 대한 수락>이며, 그리고 이 근대의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모태인 자본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견해를¹²⁾ 다소 융통성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염상섭은 이 인용 속에서 두 계급의 차이를

9) 염상섭, 같은 글.

- 10) 그의 이러한 태도가 의식적이라는 점은 그가 일본 유학시절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직접 인쇄소의 직공생활을 체험했던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권영민, 염상섭의 문학론과 리얼리즘의 인식, 김열규·신동욱편, 염상섭연구(새문사, 1982), III-17면 참조. 이런 사고의 편력을 지녔던 그가 이 글에서 유산/무산계급 사이의 변별성보다도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공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문학과의 논쟁 과정에서 얻어진 전략적인 사고의 소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조건을 강조함으로써 유산/무산계급을 근본적으로 변별하는 사회주의의 논리에 맞서서 그는 그 사회적 조건을 <본질>의 문제로 환원시키고자 한다.
- 11) 이러한 그의 시각은 흥기문에 의해 '부르조아지 문화의 지지'나 '무산계급문화의 부인'이나 '무주의와 무채색'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흥기문, 염상섭군의 반동적 사상을 반박함, 조선지광 64호(1927. 2. 1), 37-43면 참조. 김현은 이러한 염상섭의 태도를 "염상섭이 말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절대적 가치의 부인'이란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김현, 염상섭과 발자크, 김윤식편, 염상섭(문학과 지성사, 1987), 107-108면 참조. 다시 말해서 염상섭이 유산/무산의 계급적 변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적 논리, 즉 역사진행에 있어서 무산계급의 궁극적 승리와 절대화라는 논리에 대한 부정의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김윤식, 염상섭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375면 참조.

부정하고 오히려 두 계급이 그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공통성, 즉 <물질적 동물적 생육의 충족>과 <배타적 자기본위>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염상섭이 소설을 그의 중심장르로 선택했을 때, 그에게 소설이란 개인주의의 욕망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삶과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의 의미를 묻는 인식론적·윤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염상섭에게 소설이란 봉건주의에 대한 근대의식의 승리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근대의식의 토대인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습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그려내게 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그에게 소설이란 <우리가 사회적 삶, 경제적 삶, 심리적 삶이라고 명명하는 것의 감추어진, 잠재하는, 고백되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¹³⁾

III. 미적 효과와 윤리적 효과

염상섭에게 근대란 곧 자본주의이며, 또한 자본주의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합리화된 가치체계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생산토대에서 발생된 소설장르는 바로 자본주의적 사회와 삶을 비판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소설을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며, 더 나아가 소설을 현실과 유리된 허구로 파악하는 관점을 떠나게 된다.

소설이란 거짓말을 꾸민 것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이란 붓끝으로 새김질하여 보는 이의 마음에 아름답고 깊은 감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눈치채지 못하였던 인생의 형용과 자기 및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데 공리적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¹⁴⁾

여기서 염상섭은 소설이 독자에게 작용하게 되는 단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두 단계란 <감명>과 <공리적 사명>이다. 먼저 그는 소설이 독

13) Michell Zeraffa, *Roman et Societe* [이동렬역, 소설과 사회(문학과 지성사, 1987)], 23면.

14) 염상섭, 같은 글.

자에게 수용되는 전제조건으로 〈아름답고 깊은 감명〉을 강조한다. 이 〈감명〉이라는 소설적 효과를 통해서만이 독자는 현실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삶에 대한 인식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이 〈감명〉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적 대상 앞에서 인간은 그의 단독성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감각으로 열려지게 된다. …그러나 미적 대상은 인간에게 개체적 존재로 머물기를 그치고 인간상호간 서로 의존적이라고 느끼는 보다 더 고상한 단계로 인간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 명상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행위다.¹⁵⁾

염상섭이 말한 〈아름답고 깊은 감명〉이란 이제까지 독자가 〈눈치채지 못하였던 인생의 형용과 자기 및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미적 명상〉으로서의 기능을 지닌다. 이 〈감명〉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독자는 그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염상섭의 문맥에서 이 〈감명〉의 과정은 사회적 행위일 수 있으나 그것의 궁극적인 독서효과는 개체적인 차원으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감명〉의 독서효과는 어디까지나 〈자기 및 자기가 놓여 있는 현실〉의 인식이라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지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상섭은 이처럼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삶을 인식하게 만드는 〈공리적 사명〉으로서의 소설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기에 소설을 하나의 미학적 자족체나 현실과 무관한 허구로 보는 그러한 문학적 입장을 거부하면서 소설의 효용론적 기능을 강조한다.

이 말을 다시 주석한다면 소설은 꾸민 이야기로서 다만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인생에 즉한 생활기록이라는 말이요 또 정세긴밀한 묘사로서 보는 사람의 심금을 건드리는 바가 있어 미감을 취기하고 인생의 진상과 현실상을 해부 비판하여 인생행로의 귀추를 드러내 보이고 실제 생활에 향도적 비익을 주는 것이라 함이다.¹⁶⁾

그에게 소설이란 〈실인생에 즉한 생활기록〉으로 간주된다. 이 기록성에는 반드시 〈정세긴밀한 묘사〉가 전제된다. 이러한 묘사에 의해서만 독자의 〈심

15) Mikel Dufrenne, *The Phenomenology of Aesthetic Experienc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3), 68면.

16) 염상섭, 같은 글.

금을 건드리는데 효과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소설의 효과란, 따라서, 두 가지의 과정을 지니게 된다. 그 하나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현실묘사를 통해 독자에게 〈미감을 취기〉하는 예술적 효과이며, 또 하나는 〈인생의 진상과 현실상을 해부 비판하여 인생 행로의 귀추를 드러내〉 보이는 인식론·윤리적 효과가 된다. 이 두 가지 효과는 그에게 있어서 소설의 본질적 기능으로 파악된다. 이 양자는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강조될 수 없는 불가분의 것이다. 이 점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소설은—필자주) 〈작자가 경험한 인생의 편편(片片)의 실상을 진실성과 필연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가상적으로 종합안배한 일인격자의 생활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소설과 독자와의 관계를 말하면 소설은 독자의 감정과 이지에 호소하여 미감과 교훈을 주는 것—다시 말하면 예술적 효과와 윤리적 효과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그가 소설을 〈일인격자의 생활상〉으로 규정했을 때, 그가 파악하는 소설의 발생근거는 소설가의 개체적 삶의 차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 사실은 당시 작가 한 개인의 의식을 집단의식이나 계급의 세계관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카프계열의 생산미학과는 뚜렷한 대비를 보여준다.

그가 말한 〈진실성〉은 〈윤리적 효과〉와 관련되며, 〈필연성〉은 〈예술적 효과〉와 관련된다. 그리고 전자는 〈교훈〉의 기능으로서, 그리고 후자는 〈미감〉의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 양자에서 우선적인 것은 후자다. 〈미감〉의 효과에 의해서만 〈교훈〉의 효과가 동시적으로, 혹은 그 결과로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염상섭의 일관된 관점으로서 해방후 그가 소설과 문학관에 대해 논하는 글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학은 인생의 탐구요 인생의 표현이며, 인생의 의의를 발견하고 파악하여 가는 과정이 문학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자기를 완성하고 인생을 완성하여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명리를 초월한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없이는 인생의 사막 뿐이라면, 우리는 예술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예술미는 이해를 초월한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인생의 의의를 탐구하고 그 진수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술인 소이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피가 돌고 숨을 쉬고 웃고 울고 하는 인생의 산철학이요, 참된 생활의 예술적 기록이 곧 문학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을 통하여 예술적 표현미를 통하여 만민에게 주는 공감, 공명은 살벌한 생

17) 염상섭, 같은 글.

활투쟁과 감정의 반발을 융화함으로써 이해-사랑-평화의 싹을 만민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라 하겠다.¹⁸⁾

여기서 그는 역시 <문학을 통하여 예술적 표현미를 통하여 만민에게 주는 공감, 공명>으로서의 <미감>의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효과에 의해 <살벌한 생활투쟁과 감정의 반발을 융화함으로써 이해-사랑-평화의 싹을 만민에게 심어주는> <교훈>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감>과 <교훈>은 그의 상호소통관에 있어 상보적인 주요 요소가 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 서있기에 염상섭은 당대의 소설의 유형을 세 가지-통속소설과 사회주의적 선전소설, 그리고 고급소설-로 분류하면서 이 중에서 통속소설과 사회주의 소설의 지평을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속소설이란 <교훈>의 측면이 결여되어 있으며, 선전소설은 <미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소설단(小說壇)의 유행을 보면 삼개(三個)의 경향이 있으니 소위 통속소설 즉 대중문예가 그 일(一)이요, 무산파 작가들의 소위 <작품행위>라는 투쟁선전작품이 그 이(二)요, 그 다음에는 부르조아적이라고 하는 고급의 제작이다.¹⁹⁾

그는 이러한 삼분법의 논리에 의거하여 소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무산파의 소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생략되고 있다. 그리고 <고급소설>과 <통속소설>과의 변별적 대비 속에서 그의 소설관을 피력하고 있다. 이 둘 중에서 물론 그가 지향하는 것은 <고급소설>이다. 그렇다면 그의 <고급소설>이란 무엇인가.

고급이라 하며 부르조아적이라는 말의 내용이라든지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요, 혹은 전연히 무의미한 말이라고 일축에 부할 수도 있는 말이거나 어쨌든지 비교적 순예술의미를 가진 소위 고급이라는 작품은 대중과 연(緣)이 멀은 것으로 동호자끼리의 감상에 공(供)하는 범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터이니 차치(且置)하고 대중문예라는 통속소설의 현상과 및 소설과 민중과의 관계를 약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²⁰⁾

18) 염상섭, 나의 소설과 문학관, 백민(1948. 10)

19) 염상섭, 소설과 민중

20) 염상섭, 같은 글.

그가 파악하는 <소설과 민중과의 관계>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예의 민주화>의 소산으로서의 소설의 대중지향성과 여기서 그가 선호하는 <고급소설>의 반대증성 사이에는 분명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의식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와 같이 소설의 발생적 동기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민중의 예술이요 따라서 소설은 회화 기타의 예술과 같이 특수한 교양이나 감상력을 요(要)치 않고 오직 문자를 해독하기만 하면 이해(了解)하기 가능한 것이거늘 고급적이라 하고 대중적이라 함은 웬 까닭일까?>라고²¹⁾ 그는 되묻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반대중이 소설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교화적 요소가 아니라 일시적 흥미라고 지적하면서 <독후(讀後)에 그 무엇이 뇌리에 심원(沈源)하거나 말거나 인생의 실상을 묘파하였거나 말거나 표현이 얼마나 불명하거나 말거나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이 그 속에 포함되었거나 말거나 예술적으로 어떠한 힘과 빛이 맺혀 있거나 말거나 그것에는 물간섭으로 다만 사건이 어떻게 발전되고 환각하는가만이 흥미의 중심이다.>고²²⁾ 하여 통속소설 혹은 대중소설의 성격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보수주의자들은 소위 대중 mass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갖는 정치·경제·문화적 면에서의 점증하는 권력에 분개하며 대중문화를 공격한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해방된 이들 대중이 고급문화를 받아들여 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중문화를 공격한다>는 관점에서²³⁾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소설을 <민중의 시대>의 장르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향하는 소설을 <고급소설>에 국한시킴으로써 소설이 <민중>에 대해 확보하게 되는 <미감>과 <교훈>에 의한 상호소통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대중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고급문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중독자들을 비판

21) 염상섭, 같은 글.

22) 염상섭, 같은 글.

23) Herbert J. Gans,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강현수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삼영사, 1983)], 95면.

하고 공격했던 카프의 견고한 입장에서 불구하고 카프내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술대중화를 주장했던 김기진의 태도와는 분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그러나 염상섭이 생각했던 <미감>과 <교훈>의 상호소통 가능성은 이러한 대중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상향문화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가 <평민적>인 장르로 규정했던 소설은 여기에 와서 <고급>의 <미감>과 <교훈>의 상호소통 능력이나 취향을 가진 <귀족적>인 장르로 그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급이라는 말은 가장 윤리적이고 인생에 대하여 가장 희망과 애착과 용기와 자량을 가지고 생명의 본연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을 깊이로 보면서 넓이로 보는 작품에게 줄 수 있는 말이고 또 이러한 작품이요 비로소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진주라 하면 연애소설은 실연에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류의 소설은 초자(硝子)로 만든 목걸이에 지나지 않는다.²⁴⁾

위의 인용에서처럼 그의 <고급소설>은 그가 강조한 <미감>과 <교훈>의 상호소통성을 지닌 <인생을 위한 예술>로서의 소설에 국한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인생을 깊이로 보면서 넓이로 보는 작품>이란 사실상 그의 소설들에 적용시켜볼 때 <그의 최고 걸작이라고 공인된 『삼대』를 위시하여 많은 장편들이 결국은 세태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²⁵⁾ 그의 소설들의 이러한 한계는 보수적 가치판단과 절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염상섭 문학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그의 한계는 다른 한편으로 <그는 기존질서에 입각한 교훈을 베푸는 과정에서 일망정 사회적 현실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최초의 작가의 한 사람>이라는 긍정적 평가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할 것이다.²⁶⁾

24) 염상섭, 같은 글.

25) 정명환, 염상섭과 졸라, 김윤식편, 같은 책, 97면.

26) 정명환, 같은 글, 97면 참조.

IV. 가상독자—가치중립적 이상 독자

염상섭은 <고급소설>의 현실적 생산과 수용의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고급작품을 목표로 한 순문예지라든지 권위있는 간행물이 있고 또 각성한 출자가 있다 하면 다대한 자극과 공헌이 있겠으나 완전한 문예지 하나도 없이 저급의 신문소설만이 문예의 전체요 구소설이 여전히 견실한 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중의 요구가 그에서 더 나가지 못한 까닭인지 또는 작가의 미숙으로 민중은 기대 요구하되 이에 응하지 못함인지 생각하여 볼 일이다>라고²⁷⁾ 말하고 있다. 이 물음에 대해 그는 고급소설이 당대의 독자에게 읽히지 못하는 것이 생산의 측면보다는 수용의 측면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보여준다.

일편으로 다시 보면 민중 자체의 독서력과 독서욕에 그 책임이 더 돌아 갈 것 같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급무는 민중의 독서열을 고취함에 있고 취미의 선도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교육 정치 경제 등 문제와 관련하여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아무리 빈곤한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불리한 정치사정하에 있더라도 또 아무리 완전한 교육을 보급시키지 못할지라도 독서열과 취미성을 고취, 향상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나 교육, 종교단체가 가장 평화로운 수단으로 독서대이같은 것을 혹은 매월, 혹은 매주에 지정하여 포스터-선전이라든지 강화(講話) 등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²⁸⁾

염상섭은 고급소설이 존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독자들의 독서력과 독서욕의 향상을 들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중의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취미의 수준을 대중문예나 구소설의 수준에서 고급소설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염상섭의 입장은 당시 카프진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대중화의 방향, 그중에서도 김기진의 대중화론과는 정반대의 관점에 서있다. 김기진이 대중의 취미와 의식에 어느 정도 영합하는 전략적인 창작방법론을 통한 독자의 의식화라는 독서효과를 주장했던 반면²⁹⁾, 염상섭은 대중을 고급소설에 부응하는 취미와

27) 염상섭, 같은 글.

28) 염상섭, 같은 글.

29) 좋고, 앞의 논문, 117-125면 참조요.

의식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역대중화론을 펴고 있다. 즉 그의 역대중화론이란 <독서열의 고취>와 <취미의 선도향상>을 통해서 저급한 수준의 대중을 <고급> 문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그의 <고급> 소설의 이상적 독자로서 염상섭이 당시의 인텔리겐차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보기에 인텔리겐차의 경우도 이 <고급소설>을 수용할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현세로 보아서는 인텔리겐차에게도 예술에 대한 이해를 구함은 지난(至難)의 일이다. 유산계급이 영리 유타(遊惰) 한학(漢學)의 숭신(崇信) 구관념의 중화 등에 휘둘러서 신문예를 멸시하고 또 무산계급이 무지와 곤궁에 시달려서 예술에 접촉할 기회와 여유가 없음과 같이 유식계급은 정치의식과 사회적 투쟁에 누(累)가 되어 예술을 비소(鼻笑)하고 무기력한 서생배(書生裴)의 완농물시(玩弄物視)할 뿐 아니라 또한 그와같이 물건잡의 태도를 취함이 도리어 속소위(俗所謂) 점잖은 태도요 자기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의의있게 할 이라고 자신한다. 이와 같이 하여 현하의 조선에 있어서는 비단 유산 무산계급에게 뿐만 아니라 최후로 지식계급에게까지 문예는 버린 바 되었다. 그것은 지식계급이 일층 고상한 문학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연히 몰이해이거나 혹은 규지코자 하는 정신생활의 여유가 없는 소이이거나와 또다시 이것은 현하의 조선 인텔리겐차가 인생에 대하여 넓게-깊게 정관할 여유가 없고 또 그 관조력이 부족하다 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³⁰⁾

당시 대중이 흥미본위의 오락성을 소설로부터 추구함으로써 <고급소설>로부터 유리되어 있었다면,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집단은 이러한 예술을 <정치 의식과 사회적 투쟁에 누(累)가> 된다는 식의 정치편향적인 경향에 추수됨으로써 또한 <고급소설>에 대한 기피현상을 지녔던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이러한 정치편향적 지식인들이 결핍하고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해 넓게-깊게 정관>하는 <관조력>이 된다. 여기서 보수주의자로서 염상섭은 당대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가치중립적인 <인생관찰>의 태도를 요망하면서 그러한 넓고 깊은 태도의 결여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인생관찰>의 관조적 태도에 의해서만 <미

30) 염상섭, 같은 글.

감)과 <교혼>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말하는 이 <관조력>의 의미를 우리는 좀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현은 염상섭을 사대부적 이념에 매달린 복고주의적 이념을 지닌 작가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복고적인 이념을 지닌 작가에게는 예술적으로 두 가지 승리가 보장된다고 지적한다. 그 하나는 예술가의 이상인 <완전한> 작품에 대한 콤플렉스에서의 해방이며, 또 하나는 분석·조종하고자 하는 다른 이념에 대한 투철한 이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김현의 설명을 덧붙여 보기로 한다.

복고적 예술가들은 그런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는다. <복고적>이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미적 감수성에 적응하겠다는 태도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미적 감수성에 적응하겠다는 태도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힘에 대한 강한 반발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예술가를 냉정한 관찰자·분석가로 만드는 것이다.³¹⁾

위의 인용에 의할 때 <정치 의식과 사회적 투쟁>을 강조하는 당시의 지식인(더 정확하게는 사회주의 이념을 지닌 지식인)들은 <보수적> 지식인으로서의 염상섭의 미적 감수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염상섭에게 있어서 <관조>와 <냉정한>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서 이미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을 뒤집으려고 하는 정치의식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조>와 관찰과 분석이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미적 감수성에 적응>하고자 하는 작가 염상섭은 <사회적 투쟁>을 지향하는 당대의 지식인들에게서 그는 미적 감수성을 <파괴하려는 힘>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정치편향적인 당대의 지식인들은 염상섭의 <고급소설>의 가상독자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대중과 지식층을 상호소통의 가능대상에서 배제하는 염상섭의 <고급소설>의 이상적 독자는 어떤 존재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염상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내가 소설을 쓰는 표준은 동호자에게 두거나 중학생 정도를 그 평균점으로 한다는 말이 무리치 않음을 알 것이다. 문에는 결코 유산계급

31) 김현, 염상섭과 발자크, 김윤식편, 같은 책, 105-106면.

의 완롱물(玩弄物)이 아니로되 조선에서는 유한계급에게도 용납되지 못한 처지인고로 새로운 것에 대하여 민감을 가진 청소년학생이 아니면 유한계급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없는 유복한 부녀자에 한하여 그 독자를 구함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말이다.³²⁾

그는 여기서 <동호자>나 <중학생 정도>의 근대교육을 받은 젊은 지식층을 그의 <고급소설>의 가상독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 독자는 작가가 기대한 독자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서의 <의도된 독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이 독자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잠재적인 독자들의 지식, 편견, 감정을 지니는 동시에 각 개별 독자들에게 대한 더욱 특수화된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의 <의도된 독자>가 되는 것이다.³³⁾

그는 그의 <고급소설>의 독자에 대해 매우 특수화된 개념을 보여준다.<새로운 것에 대한 민감을 가진 청소년 학생>이란 그에게 어떤 독자를 의미하는가. 그 독자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것>에 대한 <민감>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지니고 있는 이상적 독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유한계급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없는 유복한 부녀자>란 사회현실을 넓고 깊게 <관조>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 여유를 지님으로써 염상섭이 지향하는 <고급소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상적 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염상섭은 <특수한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태도를 지니면서 인간 행동의 미묘한 의미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고 언어나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의도된 독자로서³⁴⁾ 매우 특수화된 <지식, 편견, 감정>의 소유자를 그의 <고급소설>의 이상적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상호소통관에 입각한 독자관은 비단 염상섭 자신의 비평적 지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설세계에게도 그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삼대』의 현실대응방법론은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인들의 운명을 통찰하고 거기에 나오는 지식인(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32) 염상섭, 같은 글.

33) Jeremy Hawthorn, *Unlocking Text*(Edward Arnold, 1987), 113면 참조.

34) Jeremy Hawthorn, 같은 책, 114면.

일단 이렇게 말해준다)의 관념을 통해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프로문학 진영을 설득시킬 수는 없는 것이 된다.³⁵⁾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을 관조하고 중립적 태도를 지키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20년대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논리였는데 이것이 『삼대』에 있어서도 수용되고 있다.³⁶⁾

위의 첫번째 인용은 염상섭이 그의 비평에서 보여준 <고급소설>의 의도된 독자에 대응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의 소설 『삼대』에서 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번째 인용은 이러한 그의 독자관이 <현실을 관조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보수주의적 현실관에 그 토대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상호소통관은 그의 <고급소설>의 상호소통 조건에 부응하는 특수집단의 독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가 의도하는 독자는 그의 보수주의적 현실관을 충족시키는 <관찰>과 <분석>의 소유자인 동시에, 소설의 미적 효과를 통해서 윤리적 효과에 도달하는 독서과정을 거치는 독자가 되는 것이다.

V. 결 론

본고는 염상섭의 평론 「소설과 민중」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상호소통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의 이 평론을 그의 소설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분석해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자본주의적 삶 속에 숨겨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그는 <미감>과 <교훈>이라는 미적 효과와 윤리적 효과를 소설의 상호소통의 두 가지 주요 요소로서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상호소통조건을 충족시키는 소설을 <고급소설>에 한정하고 있다.

35) 이주형, 민족주의문학운동과 <삼대>, 김열규·신동욱편, 같은 책, I-51면.

36) 이주형, 같은 글, 같은 책, I-50~51면.

세제, 그는 〈고급소설〉에 상응하는 독자로서 사회주의 전망에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의 지식층과 유한계급의 여성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독자관은 그의 보수적 현실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